

“결핍 너머 긍정의 세계 그리고 싶었죠”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작가 채정 첫 소설집 ‘나는 포기할 권리가 있다’ 펴내
원주 토지문화관 입주작가로 활동
뮤지션 애환 담은 연작소설 계획도



“소설을 쓴다는 건, 외롭고 지친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나가 스스로 만든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은 왼쪽 귀통이를 풀고 내일은 오른쪽 귀통이를 풀어 활자화시키는 그 일련의 행동의 되풀이가 아닐까 하고.”

소설집을 펴내는 이의 ‘작가의 말’은 왜 작품을 쓰는지 속내를 담고 있다. 기자로서 소설보다 더 읽고 싶은 글이 바로 작가의 말이다.

지난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소설 ‘등고선’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던 채정(본명 김정숙) 작가. 늦깎이로 신춘문예를 통과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당시 채정 작가는 당선소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제 시작이다. 인생의 유턴시점을 찾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소설을 썼다. 현실에서는 막히는 문맥이 술술 풀렸다. 꿈속에서의 글쓰기는 매번 만족스러웠다. 꿈은 꿈일 뿐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도 깨어났을 때의 안타까움은 컸다.”

‘유턴시점을 찾은’ 그 속도감으로 채정 작가는 그동안 바쁘게 글을 썼다. 더욱이 등단 첫 해 7편이나 정작을 받아 발표했다라는 것은 행운과 열정이 맞아떨어진 경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작가는 ‘책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는 말로 작품집 ‘나는 나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푸른사상) 출간 소식을 알렸다. 이번 소설집에는 등단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소설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책을 펴낸 작가의 내공이 투영돼 있다.

현재 작가는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 입주작가로 선정돼 부지런히 글을 쓰고 있다. 레지던시 입주 작가의 장점은 “일단 잡다한 집안 일에서 놓여나 집중도가 높아” 글을 쓰는 데 유리하다는 점



다. “집안 일에서 놓여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말에서 창작 몰입에 대한 열망이 읽혀졌다.

그는 같이 입주한 작가들이 열심히 쓰는 걸 보면 덩달아 시샘이 나 글을 쓰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소설뿐 아니라 시나리오나 시, 평론, 동화 등 다양한 작가를 만나 교류하는 것도 과외의 기쁨일 것이다.

이번 소설집은 전체적으로 부재와 결핍의 현실을 담고 긍정을 지향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예술가는 특히 소설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결

핍을 모티브 삼아 자신만의 서사를 일궈내는 사람들이다. 타자의 고통이든 자신의 아픔이든 그것은 글쓰기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다.

표제작 ‘나는 나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소설은 80년 오월 당시 시민군으로 도청을 사수했던 지인을 취재해 완성한 작품이다. 사실과 허구를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했다.

“무기를 책임졌고 간첩단으로 몰리기까지 한 부분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허구다. 당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가정했을 때의 상황을 유추했다. 김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그 상황을 인지하게 했고 결국 유공자증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지인에게 스토리를 말한 뒤 의견을 물었다. ‘괜찮다’는 허락 하에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조심스러웠다. 당시 희생자나 생존자의 뜻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고민도 많이 했다.”

작가는 “‘포기’라는 말은 어쩌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사실 문학적 의미에서 포기는 역설적 의미를 함의할 때가 더 많다.

늦깎이 작가로 등단한 것에서 보듯 채정 소설가는 등단 이전에는 다른 활동을 했다. 음악과 관련한 일이 그것이다. (기대에 부응할 만한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음악을 좋아한 나머지 오랜 세월 합창단에 소속돼 있었다. 중창단을 결성해 활동도 했었다. 그러다 산사음악회나 고택체험행사의 음악회에 초대돼 솔로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진행된 북콘서트에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음악회 형식을 가미한 콘서트를 열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성향을 북콘서트에 접목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노래가 시작하기 전 낭송가가 적당량의 문장을 낭송한 뒤 노래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생각보다 관객들의 호응도가 컸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삶과 애환 등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낼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음악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는 내용의 연작소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어쨌거나 소설을 쓰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일련의 행위를 멈추지 않기 위해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에 시간의 더께가 더해지면서 점점 밝아지고 깊어질 눈을 기대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개영 소설가 ‘손가락총’·이인호 시인 ‘접힌 산’ 여순10·19 평화인권 문학상



이인호 시인 김개영 소설가

제1회 여순10·19 평화인권 문학상에 김개영 소설가의 ‘손가락총’과 이인호 시인의 ‘접힌 산’ 외 9편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금은 소설 부문 1200만원, 시 부문 1000만원.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작가회의가 주관하는 여순10·19 평화인권 문학상은 진실과 화해, 상생과 치유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바 공모는 시 부문 850편과 소설 부문 91편이 접수됐다.

김남일·김이정 소설가, 고명철 평론가는 “소설 ‘손가락총’은 ‘여순10·19 사건’에서 자행된 ‘손가락총’에 연루된 역사적 참상과 공동체의 아픈 기억이 무속(인)의 삶과 문화 속에서 밀도 있는 언어로 그려지고 있다. 남도 전래의 무속 문화와 ‘여순10·19 사건’에 대한 역사적 참상을 예리한 서사로서 소설적 완성도가 높다”고 평했다.

목포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개영 소설가는 2013년 ‘문예중앙’ 소설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서울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창작기금을 수혜받았다. 작품집 ‘거울사원’이 있다.

시 부문을 심사한 정우영·민구 시인은 “대상 작품에 대해 시인은 알기 위해 모아 놓는 기존의 ‘표본’들 사이에서 슬그머니 몸을 내미는 ‘버섯’처럼

외롭고도 완고한 자세를 보여준다. 이 버섯은 역사적 사건이 이대로 묻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대상이며 동시에 ‘고요한 시작’임을 알리는 경종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이인호 시인은 2015년 ‘주변인과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울산작가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집 ‘불가능을 검색한다’, ‘이별 후에 동네 한 바퀴’를 펴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6일 여수 진남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 창작 공연·전시 작품 한 곳에서



전남문화재단 6~7일 성과발표회

전남문화재단이 올해 창작한 공연 및 전시 작품을 선보이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도 솔비치에서 열리는 발표회에는 2022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100여명의 결과물이 올려진다.

첫날인 6일에는 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와 합동 공연인 소리와 춤으로 풀어내는 자화상, 청년예술인의 시 낭송 연주회, 성악연주회를 비롯해 사회적가치지향프로젝트 결과물 전시, 시각예술 창작 결과물 120점을 키오스크 전시관에서 선보인다.

공연 및 전시작품뿐 아니라 강연과 설명회도 마련됐다. 먼저 신다혜 필터필 대표가 예술인의 기술활용 예술 창·제작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작품 유통과 기술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기초지자체 문화예술과 및 기초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참여 및 예산 확보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7일에는 5개 사업(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작품제작, 창작공간활용, 청년예술가활동, 사회적가치지향프로젝트), 42개 단체·개인에 대한 단위사업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문의 061-280-5821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5·18문학상’ 본상·신인상 공모

내년 2월 13일~3월 13일 접수

5·18기념재단은 5월 문학의 가능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 19회 5·18문학상을 공모한다.

이번 5·18문학상은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이 공동주최하며 본상과 신인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본상은 발행일 기준 2021년 2월 1일부터 202

2년 1월 31일 이내 기성작가의 문학 저서(시, 소설, 아동문학, 평론)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작가회의 전국지부와 계간문학들이 선정한 100인 내외의 추천인과 단행본 출판사 추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본상 당선자에게는 20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미등단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인상은 시, 소설, 아동문학이 대상이다. 시는 5편 이상 10편

이내, 소설은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아동문학은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동시 5편 이상 10편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아동문학은 동화, 동시 중 한 부분을 선택해 응모해야 한다.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

신인상 당선자는 시 부문 300만원, 소설 부문 500만원, 아동문학 300만원의 상금과 계간 ‘문학’에 수록된다. 아동문학은 계간 ‘어린이와 문학’에도 게재된다. 문의 062-360-05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